

People & Life

해병 현빈 "첫 휴가 명받았습니다"



인천 백령도 해병대 부대에 배치된 인기 배우 현빈(29·본명 김태평)씨가 23일 입대 후 첫 휴가를 맞았다.

현빈은 경북 포항시에서 신병교육을 마친 뒤 22일 인천에 도착, 중구에 있는 도서과연대에서 신고식을 하고 4박5일간 휴가를 떠났다.

오전 8시께 군 동기 50여명과 함께 4열 종대로 줄지어 부대 정문을 빠져나온 현빈은 언론인터뷰나 포토타임을 생략한 채 연예기획사 관계자의 호위를 받으며 검은색 에쿠스 승용차에 올라탔다.

이날 현빈은 입대 전보다 마르고 검게 그을린 모습이었다. 부대 앞에는 오전 6시부터 현빈을 기다린 열성팬 3명 등 총 10여명과 군 장병 가족, 취재진, 경찰 등 70여명이 있었다.

해병대 교육훈련단에 따르면 현빈은 포항에 있는 교육훈련단에서 7주간의 신병교육을 마치고 22일 퇴소했으며 인천 백령도 해병대 6여단에 배치됐다. /연합뉴스

“아이들 마음에 ‘과학의 씨앗’ 심어줘야죠”

‘전남 과학축전’ 개최 교사 모임 박해균 회장

“전남 과학축전’을 통해 전남 청소년들이 과학의 원리를 쉽게 이해하고 과학자로서 꿈을 키웠으면 합니다.”

광주·전남지역 초등학교 과학교사 등으로 구성된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 박해균(53·강진 성전초등학교 교사) 회장은 24일 “전남지역 어린이들에게 과학체험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한 전남 과학축전이 벌써 13회째를 맞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관하는 이 행사는 24일까지 나주 동신대학교 체육관 일원에서 열렸다. 이 모임을 이끌고 있는 박 교사는 지난 2008년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선정하는 이달의 과학문화인상을 수상하는 등 전남을 대표하는 과학교사다.

그는 1998년 뜻이 맞는 교사 10여명과 함께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조직, 학생들이 생생한 실험을 직접 해볼 수 있는 과학교실을 열기 시작했다.

그것이 씨앗이 되어 이제는 전남 지역에서도 수도권에서 열리는 대한민국의과학축전과 같은 전남과학축전이 해마다 열리고 있다. 모임의 회원도 출범 때 10여명에 불과했지만, 147명으로 늘었고 대학교수 회원도 있다.

초창기 회원들이 십시일반 회비를

각출해 빠듯하게 치르던 과학축전 행사는 전남도교육청과 전남도가 공식 지원하는 전남지역의 대표적인 과학행사가 됐다.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지역 청소년들에게 과학문화를 고루 접하는 기회를 주기 위해 매년 시·군을 순회하며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나주에서 치러진 올 행사에는 모두 100여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그 프로그램 마다 직접 과학을 체험해볼 수 있는 75개 부스가 설치됐다.

제주도를 비롯해 타 지역 과학교사들도 행사장에 25개 부스를 설치하는 등 유망세를 타고 있다.

이 모임 회원들은 매주 토요일 전남 섬지역을 방문, ‘찾아가는 과학교실’을 연다. 섬지역 어린이들이 과학행사에 소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회



원들은 과학 실험 기자재 등 경비를 모두 회비로 충당하고 있다.

박해균 회장은 “과학축전 행사를 방문한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과학 체험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행복하다”며 “앞으로 전남지역에 과학의 씨앗을 뿌리는 행사를 꾸준히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유치원 총연합회 백희숙 광주지회장 취임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광주지회장 백희숙 신임 회장은 최근 광주시 서구 리마디호텔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대-중앙경찰학교 경학교류협정



광주대(총장 김학중)와 중앙경찰학교(학교장 박국영 치안감)는 최근 광주대 행정관 6층 회의실에서 경학교류협정을 체결했다. <광주대 제공>

홀트아동복지회 광주후원회 바자회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 광주후원회(회장 목원배)는 최근 광주시 동구 금남로 3가 현대 Resto-cafe에서 미숙아·장애아 돕기 금 모으기 미션을 위한 ‘일일차집’과 함께 바자회를 개최했다.

한페이지, 소외계층에 사랑의 쌀 전달



광주시 유패이먼트 사업자인 (주)한페이지(대표 한상국)가 최근 사회복지단체인 ‘빛나는 대한민국 연대’에 쌀 66포대(26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음식과 사랑’ 봉사단, 요양원 위문품 전달



(사)한국음식업중앙회 광주시지회 동구지부 ‘음식과 사랑’ 봉사단은 최근 광주시 남구 성요셉요양원을 방문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200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했다.

54년간 쓴 가계부 ‘살아있는 통계자료’

진도 조영춘 할아버지, 물가 변동·마을 역사 세세히 기록



“3남 3녀, 자녀 교육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고 싶어서 가계부를 쓰게 됐습니다.”

지난 1957년부터 현재까지 54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가계부를 쓴 80대 할아버지가 화제가 되고 있다. 주인공은 진도 의신면 침계리에 사는 조영춘(83)씨.

조씨는 30세부터 54년 동안 매일 같이 본인의 일상과 가계 지출 현황을 세입, 세출로 구분해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왔다. 세입은 곡물과 특용작물, 가족 수입 등으로 구분하고 세출은 영농비, 가계용품비, 공납금, 차용금 등 세부적으로 나눠 적어왔다.

조씨의 가계부를 보면 생활 물가가 크게 올랐음을 실감할 수 있다.

1957년도 300환이던 쌀 1되(1.8ℓ)는 현재 3800원으로 47배 오른 것으로 기록됐고 소주 1병(1.8ℓ)은 230환에서 3550원으로 154배 오른 것으로 적혀 있다.

조씨는 매년 2월에 1년 전체 수입을 예상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 예산을 미리 짜고 계획에 맞게 지출해 왔다.

이는 대한민국의 농촌 가구의 서민 물가 변천사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기초 자료로, 개인의 기록을 넘어 향토사학적으로 가치가 살아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당시 교통비와 서민들의 물가 변동은 물론 매일 매일 발생하는 마을과 진도군의 소소한 역사, 민속놀이, 각종 증명서, 마을의 구전 설화, 농기구 제작법 등도 꼼꼼히 수집, 기록해 사료적인 가치가 큰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가계부를 작성해 보니 물가 변동이나 씬씀이에 대해 세부적으로 알게 됐다”면서 “죽기 전까지 가계부를 작성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해학원서 유족 서울대에 13억 기부



지난 1월 별세한 작가 박완서 씨의 유족이 서울대 인문대학 학술기금으로 13억원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알려왔다

서울대 인문대 관계자는 “기부키로 한 13억원은 박완서 선생이 남긴 현금 자산 전 부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유족과 논의해 이 돈을 교수 채용이나 연구생 지원에 쓸 계획이다. 박씨는 1950년 서울대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했다가 전쟁통에 중퇴했고 2006년 문화예술계 인물로는 처음으로 서울대에서 명예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박종철 교수, 日 약용식물 도감 펴내



순천대 박종철(57·한약사원학과) 교수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일본 약용식물 및 한방약 연구 길라잡이 책을 펴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 교수는 일본의 약용식물이나 한약에 대한 전문 연구가 부족한 관심을 일본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최근 ‘일본 약용식물 한방약 도감’을 펴냈다고 22일 밝혔다.

이 도감은 박 교수가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도교약용식물원을 비롯해 도야마대학 약용식물원, 쓰쿠바 약용식물원 등을 탐방하며 약용식물을 비롯한 한방약 자료 등을 직접 촬영한 800여장의 생생한 컬러사진을 곁들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광주신세계, 지역인재 장학금 1억 전달

광주신세계(대표 조창현)가 24일 백화점 신세계 아카데미 다목적홀에서 제16기 지역인재 장학금 100명에게 장학금 1억원을 전달했다.

광주신세계 장학회는 최근 광주 지역 57개 고등

학교에서 성적과 학행, 선행, 사회봉사 활동에 모범이 되는 학생 60명을 추천받았으며 지역인재 및 다문화가정, 장애인·어린이재단 추천가정을 대상으로 추가 40명을 선정했다.



특히 지난해 신설된 지역인재 부문에는 특정 분야에서 두각을 보여 국가공인 대회에서 전국 3위 이상의 입상을 한 우수 인재들을 골라 장학혜택을 지원했다. 또 장애인 가정 부문은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성실하게 공부하는 학생들을 광주장애인 총연합회에서 추천받아 선정했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58세의 나이에 만학의 꿈을 안고 대신고 2학년에서 재학중인 김향자씨가 장학금 혜택을 받아 눈길을 끌기도 했다. 김씨는 결혼 후 30여년간 시부모님을 극진히 봉양하다 지난 2008년 유방암에 걸렸지만 이를 이겨내는 등 자신의 한계를 극복한 모습으로 주위의 감동을 샀다.

광주신세계 조창현 대표는 “광주의 미래를 이끌 나갈 우수한 인재들을 후원·양성해 ‘더불어 건강한 사회’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신세계는 5대 지역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인재 육성에 역점을 두고 지난 96년부터 장학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16년 동안 총 2186명의 학생에게 13억8900여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동명기자 exian@kwangju.co.kr

생활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8 FAX. 062-222-4938, 222-4918

화측

▲김정현(노무현재단 광주지역위원회 대표)·최명숙씨 장남 인숙(농협 화순군지부)군 김한태·김인화씨 장녀 지혜(전남대병원 간호사)양=30일(토) 오전 11시30분 광주 서구 농성동 메리이트웨딩홀 2층 컨벤션홀. 062-366-7766.

▲김중환(하남농협 상임이사)·김경숙씨 장남 환철(송정농협)군 김일호·임유숙씨 장녀 진선(남광주농협)양=30일(토) 오전 11시40분 경북교육컨벤션 2층(미소홀)

▲홍인회(전 광주시청 도시계획과장)·윤명숙씨 장남 기욱(외환은행)군 최규호·박춘임씨 차녀 보라(호남지방통계청)양=30일(토) 낮 12시 50분 홀리데이인 광주 호텔 3층(로즈홀)

향우회

▲재광 곡성군 삼기면 향우회 정기총회(회장 김재철)=5월 1일(일) 향우회 사무소(두암동 홈플러스 뒤 남원주여탕 2층) 062-267-7761.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남원주여탕 2층) 062-267-7761.

▲66만 전·의경 출신 모임=전·의경회 결성. 019-277-0007.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목포시지회 창립 11주년 기념대회=26일(화) 오전 11시 한울웨딩문화회 연회장 061-274-6710, 011-618-7006.

▲광주 무각사 빛고을 시민을 위한 알기쉬운 불교 이야기 강좌 1-MBC ‘경제야 놀자’ 우성택의 ‘능엄경’으로 풀어보는 경제이야기=6일~5월 25일(매주 수요일) 오후 7~9시. 무각사 불교대학 강의실 선착순 100명. 수강료 10만원. 062-383-0108.

▲시민을 위한 미술치료 무료강좌=13일~5월 25일(오전 9~12시) 일신중학교 도서관 지도교수 조정아. 011-610-6589.

▲광주생명의 전화(실장식) 24시간 전화상담(1588-9191)=월~금 오전 9시~오후 3시까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들에게 상담을 통한 정서적 지지와 격려 등. 062-223-9191.

▲인구보건복지협회. 성폭력상담소=성폭력(의료, 법률, 상담지원), 청소년성상담 및 성교육 등. 062-673-1366, 062-671-4050.

모집

▲2011 시민문화예술강좌 수강생=5월 16일까지 모집·수업일은 5월 17일~10월 11일까지(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9시 30분(주1회·총 20회 수업)·모집인원은 20명내외·대학생, 직장인, 주부 등 일반 시민 누구나 가능 (사)대동문화재단 062-430-5257.

▲무료사진소토리텔링교실=20일~7월20일(수요일 오후 1시30분~4시30분) 주최 문화체육관광부·광주광역시 이야기교통 062-381-5252.

▲힐링 타이로마 회원=친구·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휴식공간 상무지구 종은빌딩 4층. 062-372-2023.

▲2011년 극단 청춘 단원은 배우(연극연기), 극작, 스텝(음향, 조명, 무대) 자기소개서(자유양식) 입단 신청서(극단청춘 다음카페) 자격요건은 20세 이상의 남녀(일부인 직장인 초보 누구나 가능) 서류 접수기

간은 30일(토)까지 극단 청춘&예술극장 통 062-430-5257.

▲요양보호사 무료교육생=여성 가장이신 분들 무료교육. 광주·전남 요양보호사교육원(전남여고 건너편) 062-222-2757, 0102.

부음

▲박예순씨 별세 세동(인테리아)·세현(자영업)·영숙씨 부친상 광형필(유통업)씨 방부상=발인 26일(화) 송정장례식장 3호실. 062-941-7103

▲김기열씨 별세 일용·정용·은마·은정씨 부친상=발인 26일(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01.

▲김관익씨 별세 한광삼·현숙·안숙씨 모친상=발인 26일(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062-231-8902.

▲양지환씨 별세 희도·희범·희열·희진·희풍·희경씨 부친상=발인 25일(월) 씨더재활병원 장례식장 1호실 062-674-4444.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故 손경남 님(여/92세)
子/子婦: 조영호/김희심 대림/박재경/이순민
연우/윤소연 연현/한희숙
女/婿: 조 분순
호실:201호 • 발인:4월 25일
장지:곡성서곡 선영 • 연락처:227-4381

故 김명남 님(여/86세)
女: 임경옥
孫: 안민경, 주현, 승현, 명희
호실:102호 • 발인:4월 25일
장지:영락공원 • 연락처:227-4315

故 이학수 님(남/72세)
子: 이승택, 영준, 민준
女/婿: 이희숙/장숙/민숙/박찬수
지영/조정민, 민영/송승정
호실:101호 • 발인:4월 25일
장지:화순 능주선영 • 연락처:227-4385

故 박영근 님(남/79세)
子/子婦: 박정민/주진선, 승민/민혜원, 준범
女/婿: 박지영/문 환
호실:301호 • 발인:4월 22일
장지:나주동강선영 • 연락처:227-4392

매우 가까운 親戚인 孝 金호정례식장 http://www.mykumbo.com 문의 (062)227-4000

謹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故 오창남 님(남/83세)
子/子婦: 오희준/하인희/홍영/김미애/방철/배영숙/방경/김희숙 女/婿: 오희국/김필근
• 발인:4월 26일 9시00분 • 장지:담양 대덕면 선영 • 연락처:250-4413

故 이사규 님(남/84세)
子/子婦: 이종일/최지경/홍성/신현민/홍민수 女/婿: 임동명/홍희숙
女/婿: 이원자/유삼순 未亡人: 김삼순
• 발인:4월 28일 00시00분 • 장지:영락공원 • 연락처:250-4409

故 김동심 님(여/78세)
子/子婦: 김동진/김동진/김동진/김동진 女/婿: 김동진/김동진
• 발인:4월 25일 09시00분 • 장지:영락공원 • 연락처:250-4407

故 김준자 님(여/78세)
子/子婦: 김준자/김준자/김준자/김준자 女/婿: 김준자/김준자
• 발인:4월 28일 12시00분 • 장지:담양천주교묘역 • 연락처:250-4410

故 박준희 님(여/91세)
子/子婦: 안영숙/전동일/정영림/정영림/정영림/유혜영 女/婿: 안영숙/김재현/정영림/정영림/정영림/배종욱
• 발인:4월 28일 12시00분 • 장지:보성 대야리 • 연락처:250-4412

그린장례식장 24시간대기 (062)250-4455